

# 최근 5년간 B형간염, C형간염 진료경향 분석

The Treatment Trend of Hepatitis B and hepatitis C  
in the Last 5 Years



조도연 주임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연구부

- Key Points**
- ☑ 한국의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B형간염과 C형간염의 진료경향
  - ☑ 최근 5년간 B형간염은 진료인원, 진료비용이 증가, C형간염은 2016년 이후 감소
  - ☑ B형간염은 50대 남성, C형간염은 60대 여성의 진료인원이 많음
- Key Words** 건강보험청구자료, B형간염, C형간염, 동반질환, 진료경향  
Health Insurance Claims Data, hepatitis B, hepatitis C, Comorbidity, Treatment Trend

## 1. 들어가며

간염은 간염바이러스, 음주에 의한 알코올, 자가면역 등에 의해 간세포, 간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발병 시 간기능 저하로 인한 피로감, 식욕저하 및 구토 등의 소화기증상, 부종, 황달, 피부소양감 등의 증상이 생기며, 상태와 원인에 따라 A형·B형·C형간염과 알코올성 간염으로 지속기간에 따라 급성·만성간염(6개월 이상 지속)으로 분류된다(질병관리본부, 2020). 이 중 간염바이러스에 의해 발병되는 B형간염과 C형간염은 대부분의 경우 아무런 증상이 없이 염증이 서서히 진행되면서, 간에 손상을 일으켜, 간의 섬유화(간섬유증), 간경화(간경변증), 간세포암종(간암)과 같은 간질환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감염병이다.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간질환의 10만 명당 사망률은 13.4명으로 전체 사망 원인 중 7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간암은 경제 활동이 많은 40대(7.6명)와 50대(24.1명)에서 사망률이 제일 높은 암으로서 사회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통계청, 2020).

B형간염과 C형간염은 평소 별다른 증상이 없이 진행되므로 평소 질환에 대한 관심과 주기적인 검진을 통한 예방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대한간학회의 ‘일반인 간 질환 인식 조사’ 결과, B형간염은 92%, C형간염은 76%로 인지 수준은 높지만, 응답자의 86%가 간염의 차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간염이 어떤 질환인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료로 완치가 가능한 C형간염은 검진율이 12.2%로 B형간염 검진율 49%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대한간학회, 2016).

따라서 이 글에서는 간암을 비롯한 간질환의 주요 원인인 B형간염과 C형간염의 최근 5년간의 진료경향과 동반질환 현황을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를 활용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2. 분석 자료 및 방법

분석자료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중 진료연월 기준 2014년 1월에서 2018년 12월까지(5년간)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심사연월은 자료 분석 시점을 고려하여 2014년 1월에서 2019년 12월까지로 설정하였다. 분석 대상은 B형간염과 C형간염을 주상병으로 진료받은 환자로 하였으며, 주상병의 상병코드는 통계청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orea Classification of Disease, KCD)를 활용하여 정의하였다. 분석관점은 연도별, 성별, 연령대별, 서식구분코드별(입원/외래), 세부상병코드별로 설정하였고, 분석값으로 진료환자수, 진료비용, 입내원일수를 산출하여 진료경향을 확인하였다.

(표 1) 자료 산출 기준

구분	산출기준
분석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li> <li>• 진료연월: 2014년 1월 ~ 2018년 12월, 심사연월: 2014년 1월 ~ 2019년 12월</li> <li>• 보험자: 건강보험, 의료급여</li> <li>• 요양기관: 약국을 제외한 전체 요양기관</li> <li>• 주상병 코드 및 코드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B형간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16) 급성 B형간염, (B170) B형간염 보균자의 급성 델타(중복) 감염</li> <li>· (B180) 델타-병원체가 있는 만성 바이러스 B형간염</li> <li>· (B181) 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 바이러스 B형간염</li> </ul> </li> <li>2) C형간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171) 급성 C형간염, (B182) 만성 바이러스 C형간염</li> </ul> </li> </ol> </li> </ul>
분석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도별, 성별, 연령대별, 서식구분코드별(입원/외래), 세부상병코드별</li> </ul>
분석값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료환자수, 진료비용, 입내원일수</li> </ul>

또한 2014년 기준 B형간염, C형간염 신규환자의 간염 첫 발생 전 3년, 발생 후 3년 내 동반질환 현황도 알아보았다. 신규환자는 [그림 1]과 같이 2014년도에 B형간염과 C형간염을 주상병으로 진료받은 환자 중 첫 진료일자 기준 과거 3년간 주, 부상병으로 B형간염, C형간염 또는 간경변증, 간암으로 진료받은 경험이 없는 환자로 정의하였고, 해당 환자 중 2014년도 첫 진료일을 기준으로 1년간 1회 이상 B형간염과 C형간염을 주상병으로 진료받은 환자(정기적으로 진료받은 환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산출 결과 2014년 기준 B형간염 신규환자는 70,898명이었고, C형간염 신규환자는 11,857명이었다.



[그림 1] 동반질환 현황 파악을 위한 간염 신규환자 산출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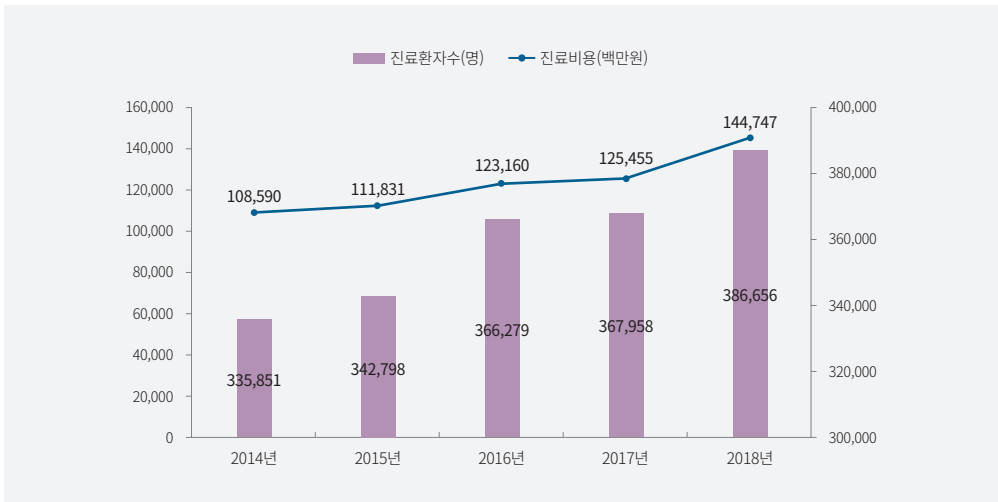
### 3. 분석 결과

#### 가. 연도별 간염 진료현황

최근 5년간 B형간염 진료환자는 (표 2), [그림 2]와 같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8년 기준 약 38만6천 명으로 2014년 약 33만5천 명 대비 15.1% 증가(연평균 3.6% 증가)하였다. 입원·외래 진료환자를 살펴보면 입원 진료환자는 2018년 기준 4,923명으로 2014년 6,294명 대비 21.8% 감소(연평균 6.0% 감소)하였고, 외래 진료환자는 2018년 약 3만8천 명으로 2014년 약 3만3천 명 대비 15.3% 증가(연평균 3.6%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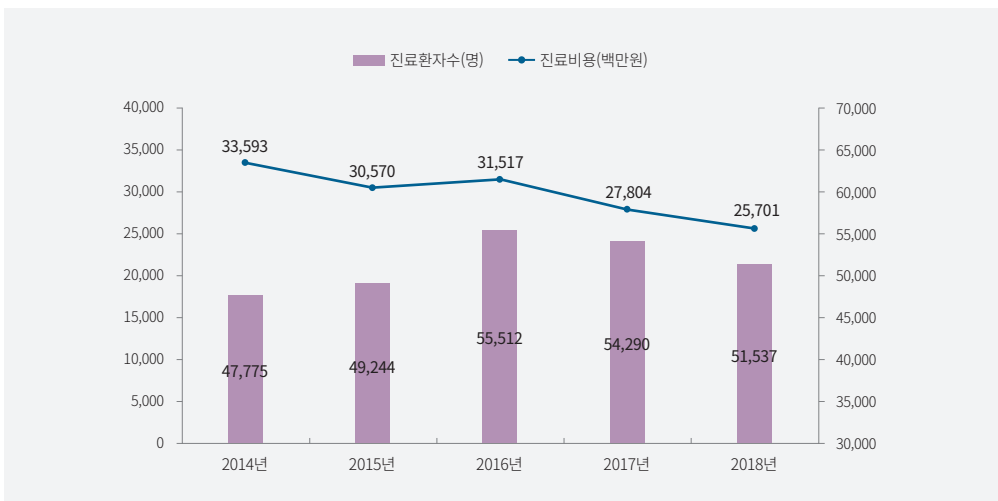
B형간염 진료비용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B형간염의 진료비용은 약 1,447억 원으로 2014년 약 1,085억 대비 33.3% 증가(연평균 7.4% 증가)하였고, 2018년 1인당 진료비용은 약 37만4천 원으로 나타났다.

각  
과  
표  
정  
의  
한  
진  
료  
비  
용



[그림 2] B형간염 연도별 진료현황

C형간염의 최근 5년간 진료환자는 (표 2), [그림 3]과 같이 2016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18년 기준 약 5만1천 명으로 나타났다. 입원·외래 진료환자를 살펴보면 입원 진료환자는 B형간염과 마찬가지로 꾸준히 감소하여 2018년 기준 1,596명으로 2014년 2,988명 대비 46.6%감소(연평균 14.5% 감소)하였고, 외래 진료환자는 2016년 집단간염 사건 이후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2018년 기준 약 5만1천 명으로 나타났다. C형간염 진료비용은 2018년 기준 C형간염의 진료비용은 약 257억 원이며, 1인당 진료비용은 약 49만8천 원으로 나타났다.



[그림 3] C형간염 연도별 진료현황

(표 2) 최근 5년간 간염(B형, C형) 진료현황(진료환자수, 진료비용, 입내원일수)

(단위: 명, 백만 원, 일)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B형간염							
진료환자수	전체	335,851	342,798	366,279	367,958	386,656	
	입원/ 외래별	입원	6,294	5,855	5,682	5,152	4,923
		외래	333,914	340,978	364,580	366,392	385,139
	상병 코드별	소계(급성)	12,665	11,398	10,036	7,376	4,207
		B16	11,235	10,028	8,505	6,103	2,958
		B170	1,443	1,379	1,544	1,278	1,252
		소계(만성)	325,695	333,449	358,354	362,158	383,681
		B180	16,973	16,487	21,853	20,824	20,393
		B181	313,239	321,252	343,908	347,164	368,734
진료비용	전체	108,590	111,831	123,160	125,455	144,747	
	입원	9,992	9,561	10,228	10,416	10,946	
	외래	98,598	102,270	112,931	115,040	133,801	
입내원일수	전체	1,501,621	1,524,889	1,601,216	1,608,196	1,663,047	
	입원일수	61,418	54,223	51,350	46,483	42,423	
	내원일수	1,440,203	1,470,666	1,549,866	1,561,713	1,620,624	
C형간염							
진료환자수	전체	47,775	49,244	55,512	54,290	51,537	
	입원/ 외래별	입원	2,988	2,611	2,452	1,959	1,596
		외래	47,084	48,589	54,958	53,780	51,093
	상병 코드별	B171(급성)	2,361	2,334	2,150	1,810	1,455
		B182(만성)	46,135	47,622	54,104	53,022	50,566
진료비용	전체	33,593	30,570	31,517	27,804	25,701	
	입원	5,439	4,906	6,264	6,678	4,845	
	외래	28,155	25,664	25,254	21,126	20,857	
입내원일수	전체	285,142	276,976	323,149	276,155	232,260	
	입원일수	42,932	37,289	30,188	23,417	17,317	
	내원일수	242,210	239,687	292,961	252,738	214,943	

주: 1) B형간염 상병코드 및 상병명  
 (B16) 급성 B형간염, (B170) B형간염 보균자의 급성 델타(중복) 감염  
 (B180) 델타-병원체가 있는 만성 바이러스 B형간염  
 (B181) 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 바이러스 B형간염

2) C형간염 상병코드 및 상병명  
 (B171) 급성 C형간염, (B182) 만성 바이러스 C형간염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진료 기간: 2014-2018)



### 나. 성별, 연령별 간염 진료현황

B형간염 진료환자를 성별로 살펴보면 2018년 기준 남성(약 22만 명)이 여성(약 16만6천 명)에 비해 약 1.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가 대부분으로 전체 진료환자의 57.4%를 차지하였으며, 진료환자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50대 남성이 약 6만7천 명으로 전체 진료환자 중 가장 많은 비율(17.5%)을 차지하였으며, 2014년 대비 1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C형간염 진료환자를 성별로 살펴보면 2018년 기준 여성(약 2만7천 명)이 전체 진료환자의 5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50대와 60대가 전체 진료환자의 55.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 여성이 7,880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15.3%)을 차지하였으며, 2014년 대비 2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최근 5년간 간염(B형, C형) 진료현황(성별, 연령별 진료환자수)

(단위: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b>B형간염</b>										
전체	196,908	138,943	200,588	142,210	211,403	154,876	211,796	156,162	220,526	166,130
10세 미만	507	445	507	423	412	382	304	273	262	244
10대	2,388	1,596	2,095	1,385	1,718	1,252	1,394	853	1,063	704
20대	10,156	7,921	8,765	6,815	8,086	6,108	7,090	5,175	6,253	4,531
30대	40,295	23,625	39,375	23,382	38,767	23,569	36,449	22,548	34,509	21,646
40대	58,506	34,325	58,866	34,636	61,827	38,510	62,096	38,790	63,277	40,656
50대	56,577	41,436	59,029	42,839	63,476	46,756	63,759	46,948	67,559	50,284
60대	22,072	20,713	24,955	23,079	28,892	27,298	31,594	29,601	36,741	33,858
70대	5,737	7,572	6,206	8,110	7,302	9,198	8,067	10,065	9,581	11,776
80세 이상	670	1,310	790	1,541	923	1,803	1,043	1,909	1,281	2,431
<b>C형간염</b>										
전체	23,176	24,599	23,474	25,770	26,246	29,266	25,518	28,772	24,114	27,423
10세 미만	19	13	13	25	24	23	23	23	12	14
10대	146	78	168	84	228	108	164	83	130	81
20대	549	508	511	493	584	547	523	422	404	380
30대	1,203	1,582	1,078	1,501	1,136	1,560	981	1,381	768	1,161
40대	5,340	3,536	5,117	3,571	5,311	3,926	4,846	3,692	3,878	3,201
50대	6,940	6,565	7,049	6,848	7,971	7,602	7,828	7,300	7,771	6,948
60대	5,045	6,342	5,398	6,958	6,166	7,992	6,248	8,132	6,144	7,880
70대	3,198	4,815	3,344	4,995	3,837	5,837	3,858	5,902	3,879	5,822
80세 이상	736	1,160	796	1,295	989	1,671	1,047	1,837	1,128	1,936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진료 기간: 2014-2018)

**다. 지역별 간염 진료현황**

지역별 진료환자(인구 10만명당)를 살펴보면 B형간염은 5년간 전국 모든 지역에서 진료환자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8년 기준으로 서울이 인구 10만 명당 1,04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광주(1,039명), 대구(1,027명), 울산(928명), 부산(912명) 순이었다. C형간염 진료환자는 2016년 이후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18년 기준 부산이 인구 10만 명당 24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주(147명), 서울(137명), 대구(130명), 경남(128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2018년 기준 간염(B형, C형) 진료현황(지역별 진료환자수)**

(단위: 명,%)

구분	B형간염		C형간염	
	전체 환자수	인구 10만 명당 환자수	전체 환자수	인구 10만 명당 환자수
서울	100,372	1,041	13,939	137
부산	31,161	912	8,728	248
인천	18,081	619	3,005	101
대구	25,145	1,027	3,306	130
광주	15,090	1,039	2,281	147
대전	13,197	888	1,779	116
울산	10,706	928	1,203	94
경기	79,044	615	7,319	56
강원	9,819	641	1,232	78
충북	7,764	489	615	36
충남	10,049	477	1,170	55
전북	12,775	697	1,286	66
전남	14,412	768	2,752	121
경북	16,757	628	1,850	63
경남	25,546	761	4,846	128
제주	5,167	787	734	104
세종	1,168	395	20	7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진료 기간: 2014-2018)

**라. 2014년 기준 간염 신규환자의 간염 발생 전, 후 다빈도 동반질환**

2014년 기준으로 간염 신규환자를 정의하여 간염 첫 진료일자 기준 이전 3년, 이후 3년간 다빈도(10순위) 동반질환을 산출하였다. 신규환자는 2014년 간염 첫 진료일자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 간염, 간경변, 간암 진료내역이 없고, 첫 진료일자 이후 1년 내 간염 진료를 1번 이상 받은 환자로 정의하였고, 산출결과 B형간염 신규환자수는 70,898명, C형간염 대상 환자수는 11,857명이었다.

B형간염 신규환자의 다빈도 동반질환을 살펴보면 2014년 진료일자 기준 이전 3년에는 위염 및 십이지장염(K29), 기능성 소화불량(K30) 등 위장관계 질환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고, 이후 3년에도 역시 위장관계 질환을 동반하는 환자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C형간염 신규환자의 다빈도 동반질환도 B형간염 신규환자와 마찬가지로 위장관계 질환을 동반하는 환자의 비율이 높아졌으며, 특히 위-식도역류병(K21)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2014년 기준 간염(B형, C형) 신규환자의 동반질환 현황

(단위: %)

구분	첫 진료일자 기준 이전 3년		첫 진료일자 기준 이후 3년	
	동반질환명(코드)	비율	동반질환명(코드)	비율
<b>B형간염 (N=70,898명)</b>				
1	위염 및 십이지장염(K29)	83.1	위염 및 십이지장염(K29)	92.1
2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J30)	64.9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J30)	73.6
3	급성 기관지염(J20)	59.3	급성 기관지염(J20)	68.5
4	기능성 소화불량(K30)	52.2	치은염 및 치주질환(K05)	64.0
5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연조직장애(M79)	48.7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연조직장애(M79)	57.8
6	치은염 및 치주질환(K05)	47.9	위-식도역류병(K21)	56.2
7	등통증(M54)	46.5	등통증(M54)	55.3
8	급성 편도염(J03)	38.9	기능성 소화불량(K30)	55.2
9	위-식도역류병(K21)	37.1	지질단백질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E78)	53.7
10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 상기도감염(J06)	36.9	간의 기타 질환(K76)	41.7
<b>C형간염 (N=11,857명)</b>				
1	위염 및 십이지장염(K29)	85.8	위염 및 십이지장염(K29)	94.9
2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J30)	66.7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J30)	77.2
3	급성 기관지염(J20)	62.8	급성 기관지염(J20)	71.5
4	기능성 소화불량(K30)	57.6	위-식도역류병(K21)	66.0
5	등통증(M54)	56.0	등통증(M54)	65.5
6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연조직장애(M79)	55.1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연조직장애(M79)	65.1
7	치은염 및 치주질환(K05)	49.3	지질단백질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E78)	64.7
8	위-식도역류병(K21)	46.5	치은염 및 치주질환(K05)	63.7
9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 상기도감염(J06)	40.1	기능성 소화불량(K30)	61.4
10	급성 편도염(J03)	38.5	간의 기타 질환(K76)	57.7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진료 기간: 2014-2018)



## 4. 나가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B형간염과 C형간염을 주상병으로 진료받은 환자의 진료경향을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B형간염을 주상병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2018년 기준 약 38만 6천 명으로 2014년 대비 15.1% 증가(연평균 3.6% 증가)하였다. 진료비용은 약 1,447억 원으로 연평균 7.4% 증가하였고, 1인당 진료비용은 약 37만4천 원으로 나타났다. C형간염 진료환자는 2018년 기준 약 5만1천 명으로 나타났으며, 진료비용은 2018년 기준 약 257억 원으로 1인당 진료비용은 약 49만8천 원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별, 연령별로 진료경향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 B형간염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1.3배 정도 많았으며, 40대와 50대가 전체 진료환자의 57.4%를 차지하였고, 특히 50대 남성이 약 6만7천 명(17.5%)으로 진료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C형간염은 여성이 진료환자의 53.2%를 차지하였으며, 60대와 50대가 진료환자의 55.8%를 차지하였고, 60대 여성의 진료환자(7,880명)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역별 진료환자(인구 10만명당)를 살펴보면 B형간염은 5년간 전국 모든 지역에서 진료환자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8년 기준 서울(1,041명)과 광주(1,039명), 대구(1,027명) 순으로 나타났다. C형간염은 2016년 이후 감소추세에 있으며, 2018년 기준 부산(248명), 광주(147명), 서울(137명)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2014년 기준 B형간염, C형간염 신규환자의 첫 진료일자 기준으로 이전 3년과 이후 3년간의 다빈도 동반질환을 살펴본 결과 위염 및 십이지장염(K29), 기능성 소화불량(K30) 등 위장관계 질환을 동반하는 환자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염바이러스를 통해 발생하는 B형간염과 C형간염은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이 서서히 간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지속 시 간경변증 혹은 간세포암종(간암)을 야기하여, 국민 건강(사망률 등)과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질환에 대한 관심 및 예방,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간염바이러스는 오염된 혈액, 침 등의 체액에 분포하므로, 평소 면도기나 칫솔을 나누어 쓰거나, 주사바늘의 반복사용 등을 피하고 비위생적인 시술(소독 안된 침시술, 문신)을 하지 않음으로써 감염을 초기에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초음파 및 혈액검사)과 예방접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대한간학회, 2017, 대한간학회, 2018). ❧

## 참고문헌

---

-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포털. <http://www.cdc.go.kr/npt/> (검색일자: 2020.04.01.)
- 대한간학회. 제17회 간의 날 기념식. 2016.
- 대한간학회. 2018 대한간학회 만성 B형간염 진료 가이드라인. 2018.
- 대한간학회. 2017 대한간학회 C형간염 진료 가이드라인: 만성 C형간염의 치료. 2017.
- 통계청.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정오표. 2016.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검색일자: 2020.04.03.)